

근세문학에 있어서 여성의 머리·머리모양*

—사이카쿠 소설을 중심으로—

양 선 희**

(e-mail : ysh1231@hanmail.net)

< 목 차 >

- | | |
|-----------------------|----------------------|
| 1. 들어가며 | 4. 머리를 매만져 주는 직업의 발생 |
| 2. 근세 이전 문학에서의 여성의 머리 | 5. 유행으로 나타나는 머리 유형 |
| 3. 머리카락을 자르는 의미 | 6. 맺음말 |

키워드 : 西鶴の小説(Saikaku novels)、女性の髪(Woman hair)、髪長(kaminaga)、御梳あげ(okannage)、髪結(kamiyui)

1. 들어가며

고대부터 여성의 머리는 검고 긴 머리가 아름답다고 하였고 여성의 미의 조건이었다. 헤이안 시대에는 여성의 신장만큼이나 긴 머리를 늘어뜨린 것이 여성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졌으나 중세에 와서는 이러한 머리 형태에 변화가 생긴다. 무로마치 시대에 와서는 긴 머리가 점점 짧아지게 되고 모모야마 시대에는 무사 가문의 최상류층의 여성들은 길게 늘어뜨린 머리 형태를 하였으나 이 시대의 특징으로서 묶어 올린 머리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머리를 묶어 올리는 것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아름다운 머리 형태가 탄생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근세의 에도시대에 들어와서는 귀족보다는 조년의 문화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자 머리의 아름다움의 기준과 머리 형태를 둘러싸고 새로운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여성의 머리 형태는 늘어뜨린 머리가 적어지고 묶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B5A07920994)

** 한국외국어대학교, 특임강의교수, 일본근세산문

어 올리는 머리가 일반적인 것이 되었고 바야흐로 여성의 머리의 아름다움의 기준은 어떠한 머리 모양을 하고 있는가에 두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고전문학에서 ‘여성의 머리’에 관련된 종래의 논고들을 보면 근세 이전 문학 작품 속에서의 고찰된 내용이 다수이다. 근세에 들어와서는 문학 작품 내에서의 여성의 머리에 대한 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있다고 하면 ‘여성의 머리 모양’을 시기별로 정리한 논고이거나 ‘머리를 매만져 주는 사람(女髮結)’에 대한 논고 등이 대부분이다.¹⁾ 이와 같은 연구 상황 가운데, 근세문학에 있어서 ‘여성의 머리’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고 여성의 머리와 관련된 내용이 근세 이전의 문학 작품과는 어떤 차별된 내용이 있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근세문학에 있어서는 사이카쿠 소설을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사이카쿠 소설은 그 시대의 풍속을 잘 묘사하고 있어 ‘여성의 머리·머리모양’을 고찰함에 있어 적합한 텍스트로서 그 시대의 여성 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이카쿠 소설을 중심으로 여성의 머리와 관련된 용례를 살펴봄으로써 근세문학에서 묘사되어진 ‘여성의 머리·머리모양’이 문화사적으로 어떠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근세 이전 문학에서의 여성의 머리

근세 이전 문학에서의 ‘여성의 머리·머리모양’의 묘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선행 연구를 참고하면서 살펴보고, 이와 같은 묘사는 사이카쿠 소설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자 한다.

먼저 『古事記』(中卷-応神天皇—(四) 髮長比売)²⁾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천황은 히무카의 모로아가타노기미의 딸, 카미나가히메가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들으시고 비로 삼으시려고 부르셨을 때 그 태자 오사자키노미코토는 그 처녀가 나니와에 정박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에 마음이 흐트러져

1) 川上順子 (1994) 「江戸時代の結髪について」 『福山市立女子短期大学紀要』 巻号20, 横山百合子(2009) 「十九世紀江戸・東京の髪結と女髪結」 『ノバ』と江戸, 長沼雅子 (2011) 「高野山東京別院伝来の古絵図にみる江戸期の女性の髪かたち—天野舞楽の見物人の風俗」 『天野社舞楽曼荼羅供』, 横山百合子(2011) 「19世紀都市社会における地域ヘゲモニーの再編—女髪結・遊女の生存と〈解放〉をめぐる—」 『歴史学研究』 885巻 등이 있다.

2) 『古事記』(新編日本文学全集), 小学館, 2003年, p.263.

天皇、日向国の諸県君が女、名は髪長比売、其の顔形麗美しと聞し看して、使はむとして喚し上げし時に、其の太子大雀命、其の嬢子の難波津に泊てたるを見て、其の姿容の端正しきに感でて

応神천황이 히무카(日向)에 사는 카미나가히메의 용모가 아름다운 것을 들으시고 비로 삼으려고 불러들이셨는데, 태자 또한 그녀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음이 심란하여, 결국은 아버지 応神천황에게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부탁하여 아내로 삼았다는 내용이 후술되어져 있다. 여기서 ‘카미나가(髪長, 이하 카미나가)’라는 이름은 머리카락이 긴 것을 말하는 것으로, 머리카락이 길고 아름다워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³⁾

한편, 위와 같은 ‘카미나가’라는 말이 근세 사이카쿠 소설의 『好色一代男』 권3의2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⁴⁾

평판 있는 가쵸·야시마·하나카와라는 여자들을 상대로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名にきさし花鳥・八嶋・花川といへる髪長を、定もあへずそこそこ寝て

이 대목은 주인공인 ‘일대남’과 그 일행이 유녀인 가쵸·야시마·하나카와를 상대로 잠자리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여기에서의 ‘카미나가’는 ‘온나(女)’라는 의미로 해석된다.⁵⁾ 『古事記』에서의 ‘머리카락이 길어 아름답다’고 해석되어진 차별화된 명칭이 근세에 와서는 ‘여자’라는 의미로 일반 명사화 된 것이다.⁶⁾ 이와 마찬가지로 예가, 『好色五人女』 권5의1에도 있다.

아침저녁으로 남색에 빠져서 나긋나긋한 여자의 유희는 지금까지 알지 못한 채 벌써 26살의 봄이 되어버렸다.

3) 飯島伸子(1989) 「古典文学に見る髪の文化史 1 古代人と髪文化」 『月刊国語教育』 (9-1), p.20에서는 이 장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검은 머리카락이 길고 풍성한 것은 이때에는 미녀의 제일의 조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카미나가히메는 그 조건을 그대로 이름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름에 지지 않을 아름다운 머리카락과 용모를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은 노선숙(2010) 「古典文学にみる「髪」と女性性」 『日本語文学』 第54輯, 韓国日本語文学会 p.22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4) 이하, 사이카쿠 소설의 인용은 ‘麻生磯次·富士昭雄著(1992) 『決定版西鶴全集』 (第一卷~第十六卷), 明治書院’에 의함.

5) 『好色一代男』 (決定版西鶴全集一) p.84 의 주석에 의하면, “원래는 이세사이구(伊勢斎宮) 의 꺼리는 말(忌詞)로 승려를 가리키고, 비구니를 ‘온나가미나가(女髪長)’ 라고 했지만 나중에 여자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여기는 후자” 라고 되어 있다.

6) 前田勇編 (1993) 『江戸語の辞典』 講談社, p.273 에 의하면 ‘かみなが (髪長) 女’ 라고 기술하고 있다.

明暮若道に身をなし、よはよはとしたる髪長のたはぶれ、一生しらずして、今ははや二十六歳の春とぞなりける。

여자와의 유흥은 알지도 못한 채 남색에만 빠져 사는 남성을 묘사한 내용이다. 이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근세에서의 ‘카미나가’라는 말은 ‘여자’라는 의미로 굳혀진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万葉集』에 나타나는 머리카락에 관한 노래를 보기로 하자. 머리카락이라는 말이 들어 있는 50수 가운데 쿠로가미(黒髪, 이하 쿠로가미)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다.⁷⁾ 『万葉集』 권2의 87번 노래이다.

이대로 당신을 기다리겠어요. 늘어뜨린 채의 나의 검은 머리카락에 서리가 내릴 때까지

ありつつも 君をば待たむ うちなびく 我が黒髪に 霜の置くまでに

이 노래는 고토바가키(詞書)에서 이와노히메 황후가 仁徳천황을 생각하며 지은 노래라고 되어 있다.⁸⁾ 이 노래를 짓게 된 이와노히메의 구체적인 동기는 여기에서 생략하겠으나,⁹⁾ 쿠로가미에 서리(霜)가 내린다고 하였으니 ‘서리’는 ‘흰 머리카락’을 비유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万葉集』의 노래에서도 특히 ‘쿠로가미’에 주목한 눈고가 있다. 伊原昭씨는 「くろかみー古代和歌に於ける色彩の一ケースとして」에서¹⁰⁾ ‘쿠로가미’는 첫째, 연령의 ‘젊음’을 상징한다고 기술하며, 권16의 3791의 노래 “(미나노와타) 새까만 머리카락을 빗으로 빗고 이 근처까지 늘어뜨리고 묶어 올려서 상투를 틀어보기도 하고 빗어 흘뜨려 소년의 모습으로 해 보거나 하고 (みなノ腸か黒し髪を ま櫛もち ここにかき垂れ 取り束ね 上げても巻きみ 解き乱り 童になしみ)”를 예로 들고 있다. 이 노래는 다케토리오키나가 아홉 명의 선녀에게 말을 거는 유명한 장가의 일절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쿠로가미’가 젊은 여성의 특히 관능적인 자태를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도 주의된다고 하며, 새까만 머리카락이야말로 그들의

7) 주3의 논문에서 ‘『万葉集』에는 머리(髪)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 50수 정도이고, 그 중 6할 정도가 쿠로가미(黒髪)라고 언급하고 있다. (p.22)

8) 『万葉集』(日本古典文学全集二), 小学館, pp.115-116.

9) 주3의 논문, p.22에서 이 노래는 “남편에의 격렬한 사모와 그 남편이 그다지 상대해 주지 않는 괴로운 입장을, 검은 머리의 흰 머리에의 변화에 의해 표현한 노래”라고 기술하고 있다.

10) 伊原昭(1956) 「くろかみー古代和歌に於ける色彩の一ケースとして」 『国語と国文学』,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33-5.

최대의 매력이었던 것 같다며 권4의 493의 노래, “남겨 두고 간다면 당신은 그리워할 것이다. (시키타에노) 검은 머리카락을 깔고 이 긴 밤을 타나베노이 미키이치히코(置きて行かば 妹恋ひむかも しきたへの 黒髪敷きて 長きこの夜を 田部忌寸櫛子)”를 예로 든다.

또한, 권11의 2532의 노래, “지나가는 길에 들른 것이라면 누구에게 보이려 한들 (누바타마노) 나의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나부끼게 할까 (おほかたは 誰が見むとかも むばたまの 我が黒髪を なびけて居らむ)”를 예로 들면서 ‘쿠로가미’는 만엽의 여인들의 자화상의 매력이기도 하고, 전부터 자신의 연정을 관능적인 자신의 모습에 의탁해서 남성에게 호소하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수단이었다라고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伊原昭씨의 ‘쿠로가미’와 만엽의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쿠로가미’에 대한 기술은, 후술하겠지만 사이카쿠 소설에 등장하는 유녀의 ‘쿠로가미’의 성격과도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헤이안 문학에 나타나는 여성의 머리에 대한 묘사를 보고자 한다. 『更級日記』(五) 「相模より蘆荻の中を駿河へ、足柄山中にて遊女に逢う」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¹¹⁾

유녀 세 사람이 어디로부터라고 할 것도 없이 나타났다. 오십 정도의 사람, 스무살 정도, 십사, 오세의 유녀였다. (중략) 머리카락이 상당히 길고 앞머리를 양쪽 볼에 아름답게 늘어뜨리고 하얗고 아담한 얼굴을 하고 있어 ‘이대로 궁녀로 가도 충분하다’고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으니
遊女三人、いづくよりともなくいで来たり。五十ばかりなる一人、二十ばかりなる、十四五なるとあり。(中略) 髪いと長く、額いとよくかかりて、色白きたなげなくて、さてもありぬべき下仕へなどにもありぬべしなど、人々あはれがるに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머리카락이 상당히 길고 앞머리를 양쪽 볼에 아름답게 늘어뜨리고’ 라고 하여 유녀의 머리 모양을 묘사하고 있으며, 그뿐만이 아니라 ‘피부색이 하얗고 아담한 얼굴’이라고 묘사하여, 여성의 아름다움을 머리 모양 만으로만 묘사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다음의 (10) 「二つの死別、源氏物語を耽読して夢想に浸る」¹²⁾의 내용을 보면,

11) 藤岡忠美校注 (1989) 『和泉式部日記·紫式部日記·更級日記·讃岐典侍日記』(日本古典文学全集十八), 小学館, pp.291-292. 이하의 인용문도 동일하다.

12) 주11의 게재서 pp.302-303.

시집갈 나이가 되면 얼굴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머리카락도 상당히 길어질 것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히카루 겐지의 총애를 받은 유가오, 가오루의 연인인 우키후네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나의 마음은 지금 생각해 보면 철이 없고 기가 막힌 일이었다.

さかりにならば、かたちもかぎりなくよく、髪もいみじく長くなりなむ。光の源氏の夕顔、宇治の大将の浮舟の女君のやうにこそあらめと思ひける心

라고 되어 있다. 여기의 인용문에서도 ‘얼굴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머리카락도 상당히 길어질 것임에 틀림없다.’라고 하며 유가오, 우키후네와 같은 미인이 되는 것은 머리모양만이 아니라 얼굴도 아름다워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듯하다.

헤이안시대의 문학인 『更級日記』는 머리카락이 길고 칠흑 같은 머리를 소유한 여성이기에 아름답다고 한 고대의 『古事記』 『万葉集』와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헤이안 시대로 내려오면서 아름다운 머리, 머리모양과 더불어 얼굴의 생김새도 미인의 조건에 넣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¹³⁾

마지막으로 중세 수필 『徒然草』에서의 여성의 머리에 대해서 언급한 곳을 보기로 하자. 다음은 『徒然草』 제9단의 내용이다.¹⁴⁾

여자는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것이 다른 일은 다 제쳐두고 누구나 눈여겨보는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중략) 여자의 머리털을 꼬아서 만든 빗줄에는 큰 코끼리라도 매어 둘 수 있고, 여자가 신고 있는 계다로 만든 피리 소리에는 가을의 사슴이 다가온다고 전해져 내려 올 정도이다.

女は髪のめでたからむこそ、人の目たつべかめれ。(中略) 女の髪すちをよれる綱には、大象もよくつながれ、女のはけるあしだにて作れる笛には、秋の鹿必ず寄るとぞいひつたへ侍る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이, 앞에서 본 『更級日記』와 같이 여성의 얼굴 생김새 등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여성의 머리모양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머리카락이 아름다운 것’ ‘누구나 눈여겨보는 것’ 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것은 『徒然草』의 작자는 여성의 매력으로 여성의 머리카락과 머리모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리고 문장 말미에 기술되어진 ‘여자의 머리털을 꼬아서 만든 빗줄에는 큰 코끼리라도 매어 둘 수 있

13) 노선숙(2010) 「古典文学にみる「髪」と女性性」 『日本語文学』第54輯, 韓国日本語文学会, p.230 을 참조하기 바람.

14) 今泉忠義訳注(2001) 『改訂徒然草』, 角川書店, p.24.

고,’ 라는 내용은 사이카쿠 소설에서의 유녀가 머리카락을 손님인 남성에게 잘라 주는 행위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이 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이상으로 사이카쿠 소설 이전의 고전문학에 있어서 여성의 머리를 묘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다.¹⁵⁾

3. 머리카락을 자르는 의미

여기에서는 사이카쿠 소설에서의 ‘쿠로가미’에 대한 묘사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머리카락을 자르다(髪を切る)’ 라는 행위에 주목하여 이와 같은 행위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쿠로가미(黒髪)

‘쿠로가미’ 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검은 머리카락을 자르다(黒髪を切る)’로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男色大鑑』 권5의1에서 ‘쿠로가미’ 가 보이는 대목을 보자.

검은 머리카락을 아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친하게 지냈던 분이 아직 이 세상에 오셔서 혹시 이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보이고 나서 머리 카락을 잘라버리려고 생각해서 (중략) 애석하게도 열아홉의 젊은 나이에 출가를 위하여 그로부터 고야산에 숨어서 사람이 찾아와도 만나지 않았다.

我くら髪の何ゆへに惜かるべし。世に思ひ人ましまして、もしこの姿を見たくもおぼしめさば、見せましてからのうへに、髪をも剃すてんと思ふ (中略) 惜や十九、出家の望み、それよりうや山にかくれて、都の人の間にもあはず

위의 내용은 젊은 남성이 자신이 사모하던 남성과의 재회를 기다리다가 만나지 못하자 머리를 자르고 출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쿠로가미’는 여성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출가한 젊은 남성의 나이가 열아홉으로 묘사되어 있듯이 여기에서의 ‘쿠로가미’는 젊다는 것을 의미하는

15) 여기에서는 일일이 예를 들어서 헤이안 문학의 여성의 머리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를 살펴보지는 않았으나, 이에 대한 것은 飯島伸子(1989) 「古典文学に見る髪の文化史3 王朝文学と髪の美学」 『月刊国語教育』(9-3), 森元雅子(1980) 「文学にみる黒髪—平安朝物語を中心に—」 『国語国文薩摩路』 25호를 참조해 주길 바란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다음으로는 『男色大鑑』 권5의4의 ‘쿠로가미’가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보기로 하자.

‘저도 열네 살이 되는 이 나이까지는 약간의 머리털이라도 빠지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검은 머리카락을 불도에 들어가기 위하여 버리기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자신 스스로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어쩔 수 없이 이 처녀도 출가하여 서쪽의 산그늘에 암자를 만들어 췌다.

みづから十四歳迄、わづかにちるをも惜みし黒髪、けふより道の捨草」と、手づから切払へば、せんかたなくはも出家になして、西のかたの山陰にひとつ庵を給び、

작사랑하게 된 남자가 출가를 하자, 사랑을 이룰 수 없다는 것에 좌절하여 자신도 쿠로가미를 잘라버리고 출가한다는 내용이다. 인용문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처녀의 나이는 열네 살이라고 되어 있다. 전술한 『男色大鑑』 권5의1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쿠로가미’도 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諸艶大鑑』 권2의5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잘라낸 손톱이랑 검은 머리카락이랑 뿐만 아니라 매일의 일을 써서 기록한 일기까지도

はなちたる爪・黒髪、日帳も

여기에서의 ‘쿠로가미’는 남성 손님에게 잘라준 유녀의 쿠로가미이다. 유녀의 나이는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젊은 여성일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사이카쿠 소설에서의 ‘쿠로가미’는 사이카쿠 소설 이전의 문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젊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카미(髪) 라고 써도 될 부분에 일부러 ‘쿠로가미’라고 쓰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2) 머리카락을 자르다(髪を切る)

다음으로는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르다(髪を切る)’라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기로 한다. 앞서 살펴 본 『男色大鑑』 권5의4의 인용문에서 엿볼 수 있었듯이,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속세의 생활을 버리고 불도에 귀의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출가’하기 위한 행위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諸艶大鑑』 권7의5의 다음의 내용에서 볼 수 있다.

이곳은 대체로 비구니의 암자만 늘어서 있다.(중략) 혹은 남자와 헤어져서 그 자리에서 우발적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나

此所は、大方比丘尼の庵也。(中略) 或は男にはなれ、当座の氣にて髪を切り

인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애인과 헤어진 여성이 출가하려고 머리카락을 잘랐다는 내용이다. 『好色五人女』 권5의3 에서도,

때때로 무상을 깨닫고 속세의 허무한 이야기 등이 나온 김에 머리카락을 자르고 비구니가 되어

折ふしは無常を觀じ、はかない物語の次手に髪を切

라고 되어 있듯이 ‘출가’하기 위해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른 것을 알 수 있다. 『好色五人女』 권3의4 에서도 “애석하게 생각하는 검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출가의 모습으로 둘이 따로따로 생활하고(惜きとおもふ黒髪を切、出家となり、二人別々に住て)”라는 내용이 보인다.

위와 같이 사이카쿠 소설에서 일반 여성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은 ‘출가’를 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유곽의 유녀가 ‘머리카락을 자르는’ 묘사가 곳곳에 나타나 있다. 다음으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자 한다. 『諸艶大鑑』 권7의1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 무렵 시타야의 쿠루마 고갯길에 몸을 숨기고 있던 떠돌이 무사가 초잔과 연애를 하게 되어 두해 남짓 변통하여 만나고 있었는데, 지금에서는 목숨도 아깝지 않을 정도의 사이가 되어 있었다. (중략) 그 때 초잔은 속옷을 교환하고, 검은 머리카락을 잘라 남자에게 던져주며, ‘유녀의 몸인지라 어제는 헤어지고 오늘은 또 만나지 못하는 남자도 인연이 되면, 그때그때 마음이 변해서 앞의 사람을 잊는 것이 관례인데, 이 정도로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자연의 인과이겠지요. 찢러 죽이고 가세요’ 라고 순식간에 미친 사람처럼 돼버렸다.

其時分、下谷の車坂に、身を隠せし牢人者、長山に馴そめ、二とせ余のやりくり、命も惜からぬ程になりける。(中略) 長山下着を取替、黒髪切てなげつけ、「勤めの身とて、きのふは別れ、けふは又、あはぬ男も縁となれば、其時の氣にかはり、忘るる事もならひなるに、是程迄おもふは、自然の因果、さしころして行」と、見るうちに狂人のごとし

위의 내용은 유녀인 초잔과 무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어 목숨이라도 내어줄 정도의 사이가 되었는데, 무사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생겨 이별

을 아쉬워하는 대목이다. 이 때 유녀가 남자에게 자신의 검은 머리카락을 잘라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이, 『諸艶大鑑』 권6의2에서도 묘사되어 있다.

또한, 오우기야의 하치자에몬에게 고용된 도키와는 이치조의 코도의 앞에 사는 다치바나 키요라는 남자와 부부의 약속을 하고, 타인도 알 정도의 깊은 사이였다. 그 남자가 어찌된 사정인지, 교토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도키와는 그것을 굉장히 슬퍼하여 머리카락을 자르고 손톱을 벗겨, 더욱 ‘이러한 때야말로 버리지 않겠다’고 편지를 써서 보내고, 밤낮 모든 신에게 기도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又、扇屋の八左衛門抱への常磐は、一条の革堂のまへなる、橘の清といふ男と、二世のかたらひ、人もしつて浅からず。此敵、いかなる事にや、京の籠者をせしに、深くなげきて、髪を切、爪をはなち、なを「此時見捨じ」と、文書ておくりて、明暮諸神をいのるもあり

여기의 인용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녀인 도키와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함께 손톱을 벗겨 남자에게 보내어 자신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전하고 있다. 유녀의 이와 같은 행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는 내용이 있어 보기로 하자. 『椀久一世の物語』 상권의 6 에 묘사된 내용이다.

‘이것을 남김없이 주겠다. 너의 검은 머리카락은 어차피 못쓰게 될 테니 그 머리카락을 잘라 내게 주어라’ 라고 말하자, 여자는 웃으며, ‘당신에게 어떤 까닭으로 머리카락을 잘라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중략) 그 돈을 던져 돌려주었다. (중략) 저와 같이 거지가 되어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아까워하는데, 유녀라는 이유로 의리를 밀천으로 정을 씨앗 삼아 손가락이랑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생각해보면 진심이 담긴 마음이다.

是を残らず取らすべし。我がくろ髪は逆も捨る物なれば、切りてくれよ」と云ふ。此女笑うて、「こなたに何の訳あつて、髪切りてまいらすべし。(中略)投返しける。(中略)あの如く袖乞ひになりても髪を惜しむ物なるに、傾城の勤めとて、義理を元とし、情を種とし、指・髪を切る事、思へば思へば誠ある心根

거리의 걸인의 머리카락이 단정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주인공 완큐는 자신이 내기에서 이겨 따낸 삼백문을 건네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잘라달라고 요구했으나, 비록 걸인이지만 자신의 머리카락을 소중히 여겨 완큐의 돈 받기를 거절했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것에 비해 유녀가 손님인 남성에게 자신의 머

리카락을 잘라준다는 것은 ‘진심이 담긴 마음’ 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¹⁶⁾

앞선 인용문 『諸艶大鑑』 권7의1, 권6의2에서도 보았듯이 유녀가 사랑하는 남성에게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 주는 행위는 ‘진심이 담긴 마음’을 표현하는 ‘사랑의 증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⁷⁾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행위는 앞서 2장에서 伊原昭씨가 ‘자신의 연정을 관능적인 자신의 모습에 의탁해서 남성에게 호소하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수단’이라고 『만엽집』의 여인들의 쿠로가미에 의미를 부여한 바와 같이,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유녀가 신체의 일부이자 가장 매력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자신의 쿠로가미를 잘라서 남성 손님에게 선물하는 것은 남성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위인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은 앞서 2장에서 본 『徒然草』 제9단 말미에서 ‘여자의 머리털을 꼬아서 만든 빗줄에는 큰 코끼리라도 매어 둘 수 있다’ 고 기술되어져 있는 내용과도 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¹⁸⁾

4. 머리를 매만져 주는 직업의 발생

여성의 머리 모양은 중세에서 근세로 시대가 내려오면서 내려뜨린 긴 머리는 차츰 올림머리로 바뀌어 사이카쿠 소설이 출판되던 에도시대 전기(17세기)에는 소설의 내용과 삽화를 보더라도 여성들의 올린 머리모양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여성들의 머리 모양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직업이 있는데 여성의 긴 머리를 매만져 올려주는 사람들의 출현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을 사이카쿠 소설에서 엿볼 수 있다.

머리를 매만져 주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사람을 일컬어 ‘카미유이(髮

16) 한편으로는 『好色一代男』 권4의2에는 유녀가 자신의 진짜 머리카락은 정부에게 주고, 다른 손님들에게는 자른 머리카락을 사서 건네주었다는 내용이 묘사되어 있다.

17) 양선회(2018) 「머리카락-여성의 아름다움을 좌우하는 멋」 『의식주로 읽는 일본문화』, p.95 에서 남성에게 잘라주는 유녀의 머리카락은 ‘사랑의 증표’ 라고 언급하였음.

18) 본고의 『梶久一世の物語』 상권의 6의 인용문에 바로 이어서 “지금까지는 여자의 머리카락은 가까운 남자가 도망가는 것을 붙잡아 매는 사랑의 큰 빗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今迄は、惜しき男の逃るるを繋ぎとむる、恋の大綱と思ひしに、さにあらず)” 라고 하는 주인공 완규의 말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것은 『徒然草』 제9단에 의한 것이다. 『好色五人女』 권1의1에도 “자르게 한 검은 머리카락은 큰 빗줄을 꼬을 정도였다. 여자의 머리카락은 큰 코끼리도 잘 매어둘 수 있다는 것이(切せし黒髪は大綱になはせける)”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徒然草』 제9단에 의한 것임.

結, 이하 카미유이) ’라고 하였는데, 이 카미유이는 여성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남성의 머리만을 매만져 주는 사람이다. 사이카쿠 소설에서는 카미유이와 ‘오칸아게(御梳あげ, 이하 오칸아게) ’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오칸아게라는 명칭이 여성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 고용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직업군에 대하여 묘사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한다.

먼저, 여성의 머리를 매만져 주던 ‘오칸아게’의 묘사만을 살펴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전에 남성의 머리를 매만져 주던 ‘카미유이’부터 살펴보겠다. 후술하겠지만 카미유이에 대하여 여성의 머리를 매만져 주던 사람을 ‘온나카미유이 (女髮結, 이하 온나카미유이) ’¹⁹⁾ 라 하였는데, 이 온나카미유이라는 말은 사이카쿠 소설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자의 머리를 매만져 주던 ‘카미유이’ 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 『好色一代女』 권2의2에서 ‘카미유이’ 에 대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기로 하자.

상대는 젊은 남자로 시건방진 옷차림새이기 때문에 영락없이 마을의 카미유이 같이 생각되었다.(중략) 다이진의 목소리가 나서 ‘날이 새기에 멀지 않았다. 너는 먼저 돌아가거라. 머리를 매만질 사람도 기다리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인정사정없이 깨워버렸습니다.

若い男のこいきすぎたる風俗、正しく町の髪結らしくおもはれける。(中略) 大じんの声して、「夜の明るに程近し。我は先へ帰れ。髪結人も待かねん」と、何のゑんりよもなく起されける

주인공 일대녀가 하급 유녀의 신분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맞이한 남성 손님이 ‘카미유이’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듯이 ‘마을의 카미유이(町の髮結)’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 前田金五郎씨는 『好色一代女全注釈』에서²⁰⁾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마을의 전속 남자 카미유이. 매일 아침 도구 상자를 손에 들고 마을 안을 돌며, 머리를 묶어 주고, 사카야키·빈을 깎아준 직인으로 일 년에 두 번의 교체는 행정기관의 알선에 의했다. 또한, 자택 또는 길가·다릿가에서 영업하는 것을 도쿄카미유이라고 하였

19) ‘카미유이(髮結)’라는 말 앞에 여자라는 의미의 온나(女) 를 붙인 것으로, 여성만이 여성의 머리를 매만져 주었다.

20) 前田金五郎(1996) 『好色一代女全注釈』, 勉誠社, p.293.

다. 카미유이는 영업 허가의 의무로서 옥졸 등의 부역을 하였으나, 일반 서민으로부터는 천하게 여겨졌다.(大阪市史·一) ” 이와 같이 그 당시의 ‘카미유이’ 라는 직업은 서민들에게 천시를 받았으며, 가게를 마련해서 영업을 하거나 마을 안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하는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두 부류의 ‘카미유이’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을 다음에서 각각 보기로 하자. 『西鶴織留』 권2의2에는

카미유이를 불러도 곧장은 오지 않는 것처럼 불유쾌한 것뿐으로 실로 분하다.
髪結もおそくまはり、心掛りの事どもいと口惜

라고 하여, 주인공이 가세가 기울어지자, 마을에 전속되어 서민들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 하위계층인 카미유이 조차 불러도 빨리 오지 않는다고 푸념하는 내용이다. 다음은 『西鶴大矢数註釈』 제3권 제22의 22번에²¹⁾

그 길가에서 가게를 열고 있는 도쿄카미유이에게 사정을 묻는 것이다.

床髪結にやうすたづねる

제3권 제33의 6번에는²²⁾

그 비의 징조에 소리개가 일찍 일어난 것과 같이 카미유이도 이슬도 이른 아침의 전망이다

鳶の朝起髪結の露 江屋

라는 하이카이의 구가 실려 있다. 여기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카미유이와 가게를 운영하던 도쿄카미유이가 있는데, 마을에 전속되어 있는 카미유이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른 아침부터 동네를 돌아다니며 영업을 했던 풍경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카미유이’ 라는 직업의 발생 시기를 多田光 〈髪結·銭湯〉 「川柳江戸職業往来」에서는²³⁾ 간에이(寛永, 1624-1644년)라고 추정하고 있다.²⁴⁾ 사이카쿠의 처녀작인 『好色一代男』가 덴나(天和)2년(1682)에 출판된 것을 감안하고, 그 이후의 사이카쿠 문학에서의 ‘카미유이’에 대한 묘사를 위에서 살

21) 前田金五郎(1987) 『西鶴大矢数註釈』, p.18.

22) 주21의 게재서, p.539.

23) 多田光(1964) 〈髪結·銭湯〉 「川柳江戸職業往来」 『国文学』 卷号9-11, 学灯社.

24) “카미유이의 기원에 관해서 「我衣」에 「카미유이의 처음은 간에이(寛永) 무렵인지(하략)” 라고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 「我衣」는 풍속에 대해서 기술한 18세기의 일기풍의 수필이다.

펴본 바를 비추어 볼 때, 수궁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림, 여기에서 앞서 살펴본 카미유이에 대하여 ‘온나카미유이’의 발생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喜田川守貞『近世風俗志(二)』(守貞謄稿)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²⁵⁾

간세이 사본 『思出冊子』에서 말하기를 여자는 호래키까지는 매일 머리를 손질한 것이다.(중략) 매일 머리를 손질한 것과 오래 가게 하는 머리를 하는 것과 반반이다. 근년에 뒷덜미의 타보를 뺀게 한 사람이 생겨나고 기름을 많이 발라 여러 날 오래 가게 하는 머리를 하는 것으로부터 온나카미유이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

寛政の写本『思出冊子』に云ふ、女子宝暦までは日髪なり。(中略)日髪と持髪と半々なり。近年張りぬき鬘入出来、油多く付け幾日ともなく持髪にするより、女髪結と云ふ者出来

말하자면, 여성들이 매일 머리를 손질하지 않고, 오래가게 하는 머리 모양을 하게 되면서부터 머리를 전문적으로 매만져 주는 온나카미유이가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이 『近世風俗志』에서는 온나카미유이의 발생을 호래키(1751-1764년)이후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내용을 근거로 하여 横山百合子씨는 「十九世紀江戸・東京の髪結と女髪結」에서 ‘폼샷을 주고받음에 따라서 여성의 머리를 묶어 주는 직업이 주목된 것은 간세이기(18세기말) 이후로 봐도 좋다.’ 게다가 ‘본래 막부는 여성의 머리는 자신이 묶는 것이 여성의 몸가짐이라고 하고, 금전을 지불해서 묶게 하는 행위를 여성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부도덕한 행위인 것으로 금지하고 있었다’²⁶⁾고 기술하고 있으며, 「19世紀都市社会における地域へゲモニーの再編—女髪結・遊女の生存と〈解放〉をめぐって—」²⁷⁾에서는 막부는 끝까지 온나카미유이를 공인하는 일은 없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세기의 사이카쿠 소설에서는 여성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 ‘오칸아게’라는 고용인이 등장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되어 있고 이들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지 보고자 한다.

25) 喜田川守貞(2003)『近世風俗志』(守貞謄稿), 岩波書店, p.154.

26) 横山百合子(2009)「十九世紀江戸・東京の髪結と女髪結」『パリと江戸』, pp.85-91.

27) 横山百合子(2011)「19世紀都市社会における地域へゲモニーの再編—女髪結・遊女の生存と〈解放〉をめぐって—」『歴史学研究』885卷, pp.12-13.

『好色一代女』 권3의4 에는 ‘오칸아게’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어떤 분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 일에 고용되었습니다. (중략) 저는 일 년에 네 번 옷을 해 주는 것 외에 급여 팔십 문메 받는 약속으로 일 년 간 일하기로 했습니다.

去御かたへ御梳にみやづかひをつかふまつりける。(中略) 我、四度の御仕着に、八拾目に定め、一とせ勤めし

주인공 일대녀가 오칸아게의 신분으로 어느 무사 집안에서 일 년 계약으로 고용되어 일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보통 고용인의 경우는 일 년에 두 번 주인으로부터 옷을 받아 입게 되는데, 위의 오칸아게가 된 일대녀는 첩이나 고시모토와 같이 일 년에 네 번의 옷을 받는 등 보통의 고용인보다 나은 대우의 조건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²⁸⁾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머리를 매만져 주는 여자를 ‘온나카미유이’라고 하지 않고 ‘오칸아게’²⁹⁾라는 말을 쓰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온나카미유이는 막부로부터 공인받지 못한 직업여성이었지만, 자신의 집에서 손님을 받거나(가게를 내어서 일을 할 수는 없었다), 손님 댁에 방문해서 머리를 매만져주는 형식으로 카미유이와 비슷한 영업 형태를 취하였다.³⁰⁾ 그러므로 고용살이를 하던 오칸아게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그럼, 오칸아게에 대해 묘사되어져 있는 부분을 좀 더 보기로 하자. 『男色大鑑』 권4의1에서는

신자이케의 나가요시사마라고 불리어 (중략) 많은 시녀, 오칸아게, 오모테즈카이, 고시모토 등 누구라도 모두 치장하고 시중들고 있는 모습은 당세풍의 궁궐과 같은 모습으로 이러한 부인이 그 밖에 있을까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新在家の長吉様と名によび、(中略) あまたの侍婢・御梳、又は表使の女、腰もと、色作りたる風俗は、当流の御所がかり、外にあるべき女とは思はれず

28) 拙稿(2015) 「일본 근세 전기 소설에 있어서 여자고용인의 양상-사이카쿠소설을 중심으로-」 『일본언어문화』 제31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338-343 참조바람.

29) 이 말에 대해서 前田金五郎(1996) 『好色一代女全注釈』, 勉誠社, p.390 에서는 ‘상층 신분의 여성의 머리를 묶어주는 것. 또는 그 역할의 시녀.(생략)’ 라고 하고 있으며, 『好色五人女·好色一代女』 (決定版対訳西鶴全集3), 明治書院, p.223 에서는 ‘귀인의 머리를 묶어주는 역할’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30) 주27과 같은 논문.

라고 되어 있다. 여기의 오칸아게가 모시고 있는 주인은 유곽에서 최상급 유녀인 다유와 유홍을 했던 시마바라에서도 제일가는 손님이었다.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궁궐과 같은 저택에서 고용인들에게도 사치를 부리게 하는 재력가인 것이다. 신분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지 않아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신자이케(新在家)³¹⁾에 거주한다는 것으로 보아 부유한 상인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상류의 무사가문의 집에서 고용살이를 하는 오칸아게는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도 고용되어져 일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懷硯』 권3의5에서는

어린 소녀들을 제외하면 고시모토인 엔과 오칸아게인 몬 두 사람 중, 어느 쪽 일 거라는 것으로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은밀하게 불러, ‘이와 같은 일은 밖에서 들어와서 생긴 일이 아니다. 반드시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한 소행인 것임에 틀림없다. 빨리 자초지종을 자백하지 않으면 모든 모진 고문을 가해서라도 말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腰元のゑん、お梳のもの、かぶろ共は除て此兩人のうちなるべしと、ひそかに奥の一間に呼よせ、「かやうの事よよりするわざにあらず。きわまつて二人の中にまがひなし。子細はやく白状せずんば、あらゆる責にかけても、いわせねばおかぬが」といへども

고 묘사하고 있다. 젊은 안방마님이 병으로 죽자 이 죽음의 원인은 고시모토이거나 오칸아게 중 한 사람의 저주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여 자백을 받아내려 모진 고문을 가하겠다는 내용이다. 결국 두 사람은 고문당한 끝에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후, 이들의 결백이 밝혀진다. 말하자면 그 당시의 고용인은 법의 보호마저 받지 못하는 미약한 사회적 약자에 불과하였다.³²⁾

이상과 같이, 여자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 온나카미유이는 사이카쿠가 활약하던 17세기를 지나 18세기가 되어서야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남자의 머리를 매만져 주던 카미유이가 사이카쿠 소설에 등장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하지만, 앞서 기술했듯이 온나카미유이와는 성격이 다른 오칸아게라는 명칭으로 상류층이나 부유한 상인의 집에서 안방마님의 머리를 매만져 주는 고용인으로서 이미 존재하였던 것이다.

31) 『男色大鑑』(決定版対訳西鶴全集6), 明治書院, p.152 의 주에 의하면, “當時新在家は、(中略) 呉服所・連歌師・儒医など、金持・文化人の住宅地であった”라고 한다.

32)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주28의 논문(p.348)을 참조바람.

5. 유행으로 나타나는 머리 유형

주지하는 바와 같이 니혼가미(日本髪) 라는 머리 형태는 에도시대에 완성되었다. 이 니혼가미는 빈(びん, 옆머리), 타보(たぼ, 뒤로 내민 부분), 마에가미(前髪, 앞머리), 마게(鬘, 상투)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³³⁾ 이 네 가지가 어떤 모양새를 하는가에 따라 유행하는 머리 유형이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1684년 간행된 『好色一代女』 권3의4에서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저도 어느덧 사람들의 차림새를 보고 배워 당세풍으로 시마다마게의 밑동을 낮게 하고, 소즈리라는 것을 묶기 시작하여, (중략) 그때그때 머리 형태는 바뀌는 것으로 지금은 효고마게는 구식이고, 고단마게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我いつとなく人の形振を見ならひ、当世の下嶋田、惣釣といふ事を結出し、(中略) 其時にかはり、兵庫曲ふるし、五段曲も見にくし

위의 인용문은 주인공 일대녀가 오칸아게의 신분이 되었을 때의 머리모양을 묘사한 것이다. 일대녀가 ‘사람들의 차림새를 보고 배워 당세풍으로’라고 말하고 있듯이, 그 당시는 효고마게는 이미 구식이 되었고 시마다마게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머리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효고마게는 머리 꼭대기 부분에 상투를 높게 만들고 상투 밑동을 삼단으로 말아 올린 것으로, 처음에는 유녀가 즐겨 묶기 시작하였다가 간분(寛文, 1661-1673)부터 일반 여성들에게도 유행하고, 그 후 젊은 여성들이 시마다마게로 묶고 나서는, 효고마게는 중년 부인이 묶게 되었는데, 겐로쿠(1688-1704) 무렵에는 중년 여성들도 싫증을 내게 되었다고 한다.³⁴⁾

사이카쿠는 위와 같이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머리 형태가 바뀌는 것을 소설에 담고 있으며 유행을 따르는 인물과 그렇지 않은 인물을 머리 모양과 옷차림새로 묘사하고 있다. 1695년 간행된 『西鶴俗つれづれ』 권4의4에서

마흔 넷, 다섯 되는 마님이 옛날 유행한 효고마게를 지금 묶고 있는 것이 이상하고(중략) 모든 것이 불쾌할 정도의 옷차림이다. 뒤에 세워 놓은 새 가마도 저 사람의 딸이 타고 있다면 볼 것 까지도 없을 것이다 라고. (중략) 나이는 열 넷이나, 다섯으로 해도 아직 어린 나무의 꽃봉오리 (중략) 목덜미는 늘

33) 大原梨恵子 (2008) 『黒髪の文化史』, 築地書館, pp.68-73.

34) 川上順子 (1994) 『江戸時代の結髪について』 『福山市立女子短期大学紀要』 巻号20, p.89.

썩하게 뺨고 상투 끈을 상투 밑동에 가깝게 묶은 오오시마다에(하략)
 四十四、五なる奥の、むかしを今に、兵庫曲おかしげに、(中略) 万いやなる采躰、跡
 にたてたる新し駕籠も、あの人の娘ならば見る迄もなしと(中略) 年の程、十四か五にも
 せよ、いまだ若木のつぼみ、(中略) 首すじ立のび、おとしがけの大嶋田(下略)

라고 하여, 어머니의 차림새는 낡은 것으로 이것에 대비되는 딸의 머리 모양과 의복은 새 유행을 따르는 것으로 상세히 묘사하고 있다. 또한 오오시마다³⁵⁾ 머리 형태를 한 어린 딸은 당세풍(当世顔)의 얼굴이라고 하며 미인으로 묘사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유행하는 머리 형태를 한 여성들은 대부분 미인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도 눈여겨 봐야하는 사이카쿠 소설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한다.³⁶⁾

오오시마다는 시마다마게와는 다르게 상투의 앞이 굽고 폭이 넓어지며 상투 뒤쪽을 떨어트린 급한 경사를 보이게 되었다³⁷⁾. 말하자면 시마다마게 보다는 진일보한 머리 형태로 여겨진다.

오오시마다가 시마다마게의 한 종류라고 하면, 나게시마다 역시 시마다마게의 한 종류로 그 당시 유행하던 머리 형태이다. 『男色大鑑』 서문에

옛날에는 내려뜨린 머리, 지금은 유행의 나게시마다로, 매화와 같은 향이 나는 머릿기름으로 당세풍으로 머리를 묶고
 下髪のむかし、当流のなげ嶋田、梅花の油くさきうき世風に

라고 하여 나게시마다 머리 유형이 유행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나게시마다가 나타나 있는 내용을 더 보기로 하자. 『浮世榮花一代男』 권3의1에서는

이것은 놀랄 정도로 미녀가 많고 한 사람도 낡은 의상을 입은 자는 없고 대부분 당세풍으로 소매자락이 특히 긴 소매로(중략) 나게시마다에 깊게 꽃은 비녀
 是はびくりとする程の美女あまた、ひとりもふるびたるはなくて、大かた当世仕立の大振袖、

35) 오오시마다는 『好色一代女』 권1의4에서 ‘눈썹을 깎고 먹을 진하게 그리고 작은 베개를 넣지 않고 오오시마다를(肩そりて置墨こく、こまくらなしの大嶋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대녀가 16살의 나이로 시마다마리의 유녀가 되었을 때를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好色一代女』 권5의2에서 ‘이 후로야온나의 기개나 옷차림은(중략) 상투 밑동을 내린 오오시마다에(此女のころざし・風俗(中略) 押下て大嶋田)’라고 하여 후로야온나가 오오시마다 머리 모양을 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오오시마다는 유녀나 후로야온나 등이 하는 당세풍의 머리 모양이었다는 것을 엿 볼 수 있다.

36) 이와 같이 묘사하는 것은 『好色一代女』 권3의4에서 ‘여자는 머리 모양이 용모와 자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女は髪から、姿のはもりといへり)’라는 점을 여성의 외관 묘사에 그대로 나타내려고 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37) 橋本澄子(2003) 『日本の髪形と髪飾りの歴史』, 源流社, p.53.

(中略) なげ嶋田にしづめかうがい

라고 하여, 여성들이 당세풍의 옷차림을 하고 있는 모습과 나게시마다 머리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미인을 묘사할 때 유행하는 머리 형태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³⁸⁾

한편으로, 원래 그 당시 유행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유녀와 가부키 배우들로서³⁹⁾, 유녀가 나게시마다 머리 유형을 한 것으로 『諸艶大鑑』 권3의3에서는 “신마치 유곽의 윤초를 걸어서 (중략) 머리를 나게시마다로 묶어 (彼四町を詠めありきて、(中略) 髪は投嶋田に結て)”라고 하여 오사카의 유곽 신마치의 유녀가 나게시마다 머리 모양을 한 것을 묘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게시마다 머리 모양이 나타나고 있는 『好色一代女』 권1의1의 내용을 보기로 하자.

열한 살의 초여름 무렵부터 왠지 마음이 들떠서 머리를 묶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마음에 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목덜미 뒷부분에 머리카락이 없는 나게시마다, 상투 묶는 부분을 눈에 띄지 않게 검은색 종이로 묶는 것도 제가 궁리한 새로운 취향이었습니다.

十一歳の夏はじめよりわけもなく取乱して、人まかせの髪結すがたも氣にいらず、つとなしのなげしまだ、隠しむすびの浮世髻といふ事も、我改ての物好み

주인공 일대녀가 열한 살의 어린 소녀 시절에 나게시마다 머리 모양을 한 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다. ‘나게시마다’는 시마다의 상투 끝이 뒤로 쓰러진 형태였기 때문에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유녀나 무희에 의해서 또한 색다른 것을 좋아하는 일반 여성도 이것을 묶어 화류계를 흉내 내기도 하였다. 건실하게 묶은 상투가 아니고 건드리면 바로 떨어질 것 같은 모양을 가진 불안정한 상투인 것에서 몸을 파는 직업의 여성이 선호하였다.⁴⁰⁾ 이와 같은 것은

38) 『西鶴俗つれづれ』 권2의3에서도 ‘특히 외동딸은 미인으로 태어나서 (중략) 지금은 당세풍의 나게시마다로 묶을 나이가 되었다. 여자는 머리 모양이 용모와 자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전해지는 것 같이 (殊更ひとりのむすめ美形にして、(中略) 当流のなげ嶋田、女は髪かしらといひ伝へしごとく)’라고 묘사하여 미인인 소녀가 성장하여 당세풍의 나게시마다로 머리 모양을 하니 더욱 아름다워진 것을 표현하고 있다.

39) 『好色一代女』 권3의4에서 “근년은 아녀자도 암전하지 않고 유녀와 가부키 배우의 옷차림을 보고 배워(近年は、人の嫁子もおとなしからずして、遊女・かぶき者のなりさまを移し)”라고 묘사하고 있다.

40) 주33의 게재서, p.87.

앞의 『諸艷大鑑』 권3의3의 인용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나게시마다 머리모양을 어린 소녀인 일대녀가 하고 있는 것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열한 살의 초여름 무렵부터 웬지 마음이 들떠서’ 라고 하여 그녀의 앞으로의 파란만장하고도 남성편력의 인생을 예고하는 듯한 어조로 시작되지만, 특히 그 나이에 걸맞지 않는 조숙한 여자 아이의 외모를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나게시마다 머리 모양을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6. 맺음말

근세 사이카쿠 소설을 비롯하여 『古事記』 『万葉集』 『更級日記』 『徒然草』 에서 여성의 머리카락과 머리 모양에 대한 용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사이카쿠 소설에서의 ‘쿠로가미(黒髮)’는 ‘짧음’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전의 고전문학에서의 쿠로가미가 짧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다. 하지만 고대의 ‘카미나가(髮長)’라는 말은 긴 머리카락을 뜻하는 것으로 사이카쿠 소설에서는 ‘여자’라는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 언어 의미의 근세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근세의 일반 여성들이 ‘출가’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에 비해 유녀가 남성 손님에게 자신의 칠혹 같은 긴 머리카락을 잘라주는 것은 가장 매력적이고 한편으로는 관능적일 수 있는 신체의 일부로 남성 손님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사이카쿠 소설에서는 의복과 함께 여성의 머리 모양으로 등장인물의 직업과 인물의 성향을 그리고 있다. 특히 『好色一代女』의 주인공인 일대녀의 성향을 다름이 아닌 그녀가 하고 있는 머리모양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그 당시 사이카쿠의 인간과 풍속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에서 비롯되었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41) 주17의 게재서, p.100에서 언급하였음.

【참고문헌】

- 노선숙(2010) 「古典文学にみる「髪」と女性性」 『日本語文学』 第54輯, 韓国日本語学会, p.230.
- 양선희(2015) 「일본 근세 전기 소설에 있어서 여자고용인의 양상-사이카쿠소설을 중심으로-」 『일본 언어문화』 제31집,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pp.338-343. (DOI :10.17314/jjlc.2015..31.017)
- (2018) 「머리카락-여성의 아름다움을 좌우하는 것」 『의식주로 읽는 일본문화』, p.95.
- 飯島伸子(1989) 「古典文学に見る髪の文化史 1 古代人と髪文化」 『月刊国語教育』 (9-1), pp20-22.
- 伊原昭(1956) 「くろかみー古代和歌に於ける色彩の一ケースとして」 『国語と国文学』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33-5, pp.10-18.
- 大原梨恵子 (2008) 『黒髪文化史』, 築地書館, pp.68-73.
- 川上順子 (1994) 「江戸時代の結髪について」 『福山市立女子短期大学紀要』 巻号20, p.87-90.
- 喜田川守貞(2003) 『近世風俗志』 (守貞謄稿), 岩波書店, p.154.
- 多田光(1964) 〈髪結・銭湯〉 「川柳江戸職業往来」 『国文学』 巻号9-11, p.94.
- 橋本澄子(2003) 『日本の髪形と髪飾りの歴史』, 源流社, pp.39-56.
- 前田勇編 (1993) 『江戸語の辞典』, 講談社, p.273.
- 前田金五郎(1996) 『好色一代女全注釈』, 勉誠社, p.293.
- 横山百合子(2009) 「十九世紀江戸・東京の髪結と女髪結」 『ハリと江戸』, pp.85-91.
- (2011) 「19世紀都市社会における地域へゲモニーの再編—女髪結・遊女の生存と〈解放〉をめぐって—」 『歴史学研究』 885巻, pp.12-13. (DOI: <https://ci.nii.ac.jp/naid/40019022622>)

<텍스트인용>

- 麻生磯次·富士昭雄著(1992) 『決定版西鶴全集』 (第一卷~第十六卷), 明治書院.
- 今泉忠義訳注(2001) 『改訂徒然草』, 角川書店, p.24.
- 藤岡忠美校注(1989) 『和泉式部日記·紫式部日記·更級日記·讃岐典侍日記』 (日本古典文学全集十八), 小学館
- 山口佳紀·神野志隆光校注(2003) 『古事記』 (新編日本文学全集), 小学館, p.263.

논문 투고 일자 : 2019. 10. 09.
논문 심사 일자 : 2019. 11. 03
게재 확정 일자 : 2019. 11. 06

 < 要旨 >

 近世文学における女性の髪・髪形
 —西鶴の小説を中心に—

梁先希

近世の西鶴の小説を筆頭に、『古事記』『万葉集』『更級日記』『徒然草』において女性の髪と髪形についての用例を挙げて考察した。まず、西鶴の小説における「黒髪」は若さを意味しているが、西鶴以前の古典文学においても黒髪が若さを象徴するのと同様である。しかしながら、古代に「髪長」という言葉は長い髪を意味しているが、西鶴の小説においては女という意味である。これは言葉の意味の近世化であるといえよう。近世の一般の女性が「出家」をするために髪を切るのに対して、遊女が男の客に自分の真っ黒で長い髪を切って贈るのは、一番魅力的であり、一方では、官能的とも言える身体の一部をもって男の客の心をとらえるための行為であると思われる。西鶴の小説は衣服とともに女性の髪形で登場人物の職業と人物の性向を描いている。特に『好色一代女』の主人公である一代女の性向を他ならぬ彼女の髪形をもって表わそうとしたのは、その当時の人間と風俗についての西鶴の鋭い洞察力によるものであるといえるだろう。

 The Shape of Female Hair in Early Modern Japanese Literature
 —focusing on Saikaku's Novels—

Yang, Seon-Hee

This study reviewed the presence of female hair and hairstyles in the novels *Kojiki*, *Manyoshu*, *Sarashina Nikki*, and *Tsurezuregusa*, as well as in Ihara Saikaku's novels of the early modern period. In Saikaku's novels, "kurogami" means "young", which is the same context in which *kurogami* is used to symbolize youth in classical literature. The ancient word *kaminaga* means "long hair" and is used in Saikaku's novels to mean "a woman". Such uses can be regarded as the modernization of language meaning. It is considered that unlike the typical modern women who cut their hair to "seclude", women of Saikaku's time cut their long ebony hair and handed it to male guests to captivate them, since the hair was the most attractive and sensual part of their bodies. In Saikaku's novels, the female characters' occupations and character are described along with their hairstyle and clothing. In particular, one can assume that the intention of expressing the inclinations of the protagonist of *The Life of an Amorous Woman* through her hair shape stemmed from Saikaku's insightful perception of people and customs at the time.